

# 조선·해운 기업구조조정 54% 실패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해운업체 2곳 중 1곳은 기업회생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채권 은행별 조선·해운분야 기업구조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대기업 11개, 중소기업 15개 등 총 26개의 조선·해운사가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기업은 1개사에 불과했다. 14개(54%) 기업은 파산, 회생절차, MOU 약정 불이행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했고, 11개(42%) 기업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중이다.

2008년 이후 26개사 자율협약·워크아웃 신청  
정상 졸업 1곳 뿐... 14곳 실패·11곳 진행 중  
최대 약 27조 6832억 평가 손실 예상

채권은행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간 2곳 중 1곳은 사실상 회생에 실패한 셈이다.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실적에 따라 실패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이배 의원의 분석한 결과 채권 금융기관이 이들 26개 조선·해운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지원한 금액은 총 20조76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회사들이 구조조정에 들

어가기 직전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 17조9408억원보다 3조원 가까이 많은 자금이다. 그러나 회수한 금액은 11조178억원에 불과했다. 향후 기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회수금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최대 약 27조6832억의 평가 손실이 예상된다. 은행별로 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

행이 투입된 구조조정 지원 금액은 전체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금액의 97%인 20조1497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원금의 80%는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등 4개 회사에 썼다.

이 4개 회사에 대한 채권단의 손실 규모는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19조 2812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채이배 의원은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비전 없이 국책은행을 통해 일단 퇴출만 막아보자는 식의 팽질식 구조조정이 문제"라며 "개별회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산업에 대한 방향성, 그에 따른 철저한 계획이 뒷받침된 신중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ATM 마감시간 10분 전 음성안내

올해 4분기 중으로... 3분 전부터는 화면 통해 안내

마감시간에 임박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하다 금융거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창구에 갈하는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해 4분기 중으로 ATM 화면을 통해 마감시간 등을 안내하고 음성안내 시간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일반 은행 ATM은 설치 장소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를 뿐 아니라 마감 즉시 자동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전등이 꺼지고 문이 닫힌다.

그러나 안내문은 통상 ATM기기 및 부스 자동화코너 출입문 등에 부착해 주의 깊게 보지 않을 경우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마감시간에 ATM이 자동 중단돼 ATM에 넣었던 카드를 반

환받지 못하거나 이용 중이던 거래의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불편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자동화기기 마감시간 3분 전부터 ATM 화면을 통해 마감시간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안내는 자동화코너의 마감시간 10분 전부터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종전에는 은행별로 안내시작 시점이 마감 2분 전에서 10분 전으로 달랐고 음성안내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 마감시간이 임박했음을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다만 병원, 회사, 군부대 등 ATM의 설치장소가 개방돼 있는 경우에는 음성안내 없이 ATM 화면을 통한 안내만 제공한다. /뉴시스

## “지자체 국제행사 유치 통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 유치를 통제할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행사 유치, 행사의 대형화, 추가 국비지원 요구 사례 등으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2~2015년에 개최된 국제행사 전체 60건(2조3000억원) 중 상위 5개 행사(여수엑스포, 인천아시아게임, 광주 I대회 등)에 국비지원의 약 89%(2조 원)가 집중된 바 있다.

정부는 삼중평가를 통해 국제행사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유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유치 시 지방의회 심사를 의무화하고 총사업비관리, 국고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후관리비용 심사로 사업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축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수출이 2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인 만큼 중점 과제를 선정해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 관련 사업들을 통합·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지원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베일 벗는 아이폰7... 애플 ‘위기설’ 걷어낼까

무선 이어폰·저장 용량 32GB 예측... 외신 회의적 입장... LG V20 어제 공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애플의 공세가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업체들간 경쟁이 가열될 조짐이다.

애플은 오는 8일(미국시간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반기 신모델 아이폰7을 공개한다. 연이은 실적 악화에 이어 선보이는 이번 모델이 반전의 카드가 될 지 눈길이 쏠린다.

아이폰7과 관련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단연 ‘이어폰 단자의 소실’이다. 유력 전문가들은 아이폰 신제품에서 3.5mm 이어폰 잭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신 블루투스 등으로 이용 가능한 무선 이어폰을 공개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용량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하는 이미징, 영상 등의 품질이 높아지며 높은 용량은 필수가 된 지 오래다. 각종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7의 기본 저장 용량은 32GB로 전작 대비 두 배 늘어나고 256GB 용량 제품도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탑재해 먼저 호응을 얻은 방수·방진 기능이 아이폰에 더해질 거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방수 가능 채용 여부는 스마트폰 두께와 직결되는 탓에 구체적인 기능은 공개 직후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7은 컬러도 5가지로 출시돼 고객들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현재 기준에 나오던 실버와 골드, 로즈골드에 피아노블랙과 다크 블랙 두 가지 컬러가 추가될 것으로



LG의 새 스마트폰 'V20'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LG전자 서초 R&D 캠퍼스에서 열린 'LG V20 신제품 발표회'에서 모델들이 신제품 스마트폰 'V20'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엔 선보인 'V20'은 업계 최초로 앞·뒷면 모두 광각 카메라를 장착하고, 덴마크의 명품 오디오업체인 뱀엔클롭슨과 함께 스마트폰으로는 최상급 오디오 기능을 넣어 차별화된 멀티미디어 기능이 특징이다.

예상된다. 아이폰7 공개를 앞두고도 외신은 애플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중대한 기로(Critical Juncture)'에 놓여 있다고 보도하며 아이폰 7 출시가 애플을 시련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애플 사용자들은 이어폰 잭 제거에 수백만개의 헤드폰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바

보 같은 결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강력한 경쟁자였던 삼성 갤럭시노트7의 최근 리콜 사태가 호재로 작용해 반전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아이폰7과 LG의 V20까지 연이어 공개되며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LG의 V20은 7일, 아이폰7은 한국시간 8일에 각각 공개 예정이다. /뉴시스

## 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교섭 잠정합의

한국지엠주식회사 노사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지엠은 지난 6일 열린 30차 교섭에서 기본급 80,000원 인상, 격려급 650만원(타겟 즉시 지급), 성과급 450만원(2016년 말 지급) 등 임금 인상과 미래발전전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한국지엠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

경 속에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고려하고, 동시에 조속한 협상 타결로 시장 내 소비자 신뢰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고,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4월 26일 첫 상견례 이후 30여 차례의 교섭을 통해 이번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문성근 기자

## 내일부터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한은·금감원, 내달 30일까지 전국 1820가구 대상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182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2012년 한국은행, 2014년 금융감독원이 각각 실시했으나 통계청 승인을 얻어 올해부터 공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경제·금융교육 글로벌 협력기구인 OECD INFE에서 제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 경제·금융교육방향 수립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간 비교 등에 활용하게 된다.

한국개발조사연구소의 전문조사원이 전국 표본조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 1대1 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인구통계정보 등의 영역 총 4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